

대구시의회, 운문댐 수계 현황 점검

취수탑·정수장·댐둑 등 살펴 수돗물 안정 공급 대책 당부

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(박갑상 위원장)는 제267회 정례회 기간인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를 직접 찾아 저수량, 수질 등 운문댐 수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.

이날 건교위의 운문댐 현장 방문은 최근

의 서울·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지난 운문댐 고갈사태가 올해도 재연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
이날 건설교통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운문댐 시설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, 취수탑·정수장·댐둑 등 주요현장을 둘러보며 운문댐 수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.

이창재 기자 lcj@idaegu.com